

16~17세기 李潛·李得胤 父子의 講學活動과 門人의 動向

고수연*

- I. 머리말
- II. 李潛·李得胤 父子의 學風과 講學活動
- III. 이잠·이득윤 부자의 門人 構成과 分岐樣相
- IV. 맺음말

<국문 초록>

조선시대 청주지역은 서인·노론계의 宗匠인 尤庵 宋時烈이 학문적·정치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던 지역으로 그가 세상을 떠난 직후 인근에 華陽書院과 萬東廟가 건립되어 노론의 상징적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론계 세력확대에 반대하는 청주지역 남인·소론계 사족에 의해 鄉戰이 일어났고, 1728년에는 남인·소론 사족이 중심이 된 무신란 반란군에 의하여 청주성 점령까지 이루어진 지역이다. 이러한 청주지역 사족의 모습은 이른바 17세기 후반~18세기의 2세대 사림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선 16~17세기 전반 청주지역 1세대 사림은 2세대 사림과는 다르게 다양한 학풍을 수용하였고, 사족간의 다양한 학문적

* 영동대학교 교양융합학부 교수

교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중심에 李潛·李得胤 부자가 있었다. 이잠과 이득윤 부자의 학풍과 강학활동과 문인 양성은 첫째, 琅城八賢이라는 청주의 걸출한 학자군을 완성하게 했으며, 둘째 湖西左道에서 두 번째로 莘巷書院을 건립하게 했으며, 셋째 이득윤과 이잠의 청주 출신 문인 51명을 과거에 입격시켰던 것이다. 즉, 이잠과 이득윤 부자는 청주지역에 1세대 사림의 인물과 그 활동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학활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강학활동은 청주사림의 학문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득윤 사후 17세기 후반에 이르면 중앙의 정계에서 불어 닥친 당쟁의 영향으로 이잠과 이득윤 문인들은 分岐한다. 그리고 그 움직임에는 이득윤의 수제자인 李德洙와 송시열이 개입되어 있다. 즉, 노론의 신항서원 운영주도권 확보 노력, 각 당파의 서원 건립추항 경쟁, 각종 향전으로 문인들이 대립한 것이다. 그리하여 17세기 후반에 이득윤의 문인과 그 후손은 철저히 당색으로 나뉘고, 이후 1728년 영조대 戊申亂이라는 격한 대립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무신란이 평정되면서 청주 지역의 학문, 사상사적 위상은 노론계가 중심이 되어 더욱 강화되고 경직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주제어 : 李潛, 李得胤, 淸州地域, 宋時烈, 琅城八賢

I. 머리말

조선중기 이후의 湖西地域에 대한 사족의 연구는 활발한 편이나, 지금까지는 湖西學派라고 일컬어지는 西人系 士林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온 경향이 있다.¹⁾ 그러나 호서지역은 조선중기 이후 서인계 사림

뿐만아니라 北人·南人系의 다양한 학맥이 공존하여, 활발한 활동을 보여왔다. 그 중 하나가 바로 剡溪 李潛(1528~1575)·西溪 李得胤(1553~1630) 父子의 강학활동 속에서 성장한 淸州士林의 활동이다.

청주지역은 이미 고려 말 사대부를 대표하는 牧隱 李穡이 조선 개국 세력을 견제하다 彝初의 獄(1390년)에 연루되어 청주옥에 갇힌 일, 율곡 이이가 西原鄉約(1571년)을 만들어 시행한 것 등에서 보이듯이 사족의 전통과 기반이 강했다. 그리고 16세기 초부터 이러한 사족 기반은 세력화하기 시작한다.

청주지역 사족의 동향을 크게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조선 초 성리학의 정착과정, 16~17세기 전반 1세대 사림의 다양한 학풍과 활동,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2세대 사림의 활동, 1728년 영조대 戊申亂을 기점으로 그 이후 청주지역 사림의 分岐현상, 그리고 한말의 의병활동 등으로 정리 할 수가 있다.

이중 2세대 사림의 활동은 尤庵 宋時烈(1607~1689)의 서인-노론계 학맥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 청주지역과 송시열의 밀접한 관련성은 청주가 그의 妻家이며, 청주 인근 화양동에 오랜기간 머물렀으며²⁾, 그가 세상을 떠난 후 華陽書院(1695년 건립)과 萬東廟(1704년 건립)가 세워져 서인-노론학맥의 학문적·정치적인 상징적 장소로 자리매김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청주지역에서 우암 송시열의 서인-노론학맥과 관련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2세대 청주사림의 활동상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형태로 진전되어 있다

-
- 1) 沙溪 金長生·慎獨齋 金集부터 그 제자인 尤庵 宋時烈과 그 적통을 이은 遂菴 權尙夏, 그리고 수암의 제자인 江門八學士 등 서인계 사림에 대한 연구는 사상·정치·사회사 분야에서 적지 않게 연구되었다.
 - 2) 송시열이 화양동을 처음 찾은 것은 1651년(효종 2)이었으며, 1666년(현종 7) 화양동에 華陽溪堂을 짓고 본격적으로 거처한 이래 1688년(숙종 14) 4월 마지막 화양동을 떠날 때까지 무려 23번이나 왕래하며 거거하였다(『송사대전』, 「부록2」, <年譜> 참조).

고 하겠다.³⁾

이에 비한다면 청주지역 1세대 사림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하다. 물론 이들 인물에 대한 개별적 인물사 정리가 없지는 않으나 이를 하나로 묶는 청주 사족의 동향과 성격이라는 관점에서의 상세한 정리성과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 생각된다.⁴⁾ 그러나 이들 1세대 청주사림이 활동한 16~17세기는 청주지역 사림기반이 세력화 하는 시기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1세대 청주사림에 대한 연구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후대 청주 사림의 탄생배경과 성격도 제대로 복원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다루려는 이잠과 이득윤은 청주지역의 1세대 사림이자, 그 무리를 하나의 학맥으로 묶을 수 있는 강학활동을 전개한 인물이다. 즉, 剡溪 李潛은 16세기 후반 진사로서 청주지역에서 많은 문인과 교류하면서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그러나 이잠에 대해서는 청주지역 내에서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이것은 이잠이 관계에 나아가지 않았고, 현전하는 문집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잠의 아들 西溪 李得胤 역시 청주지역 1세대 사림 학자군인 琅城 八賢의 일인으로 17세기 초까지 청주 미원 수락동과 옥화동에서 적극적으로 강학활동을 진행한 인물이다. 그러나 이득윤도 이러한 강학활동으로 청주 사림의 구심체가 된 모습 보다는 거문고 관련 기

3) 전용우, 「華陽書院과 萬東廟에 대한 一研究」, 『湖西史學』 18, 1990 ; 이정우, 「17~18세기 초 淸州地方 士族動向과 書院鄕戰」, 『朝鮮時代史學報』 11, 1999 ; 고수연, 「1728년 戊申亂과 淸州地域 士族動向」, 충북대학교 사학과박사학위논문, 2008 ; 정만조, 「우암 송시열과 화양동 서원」, 『우암논총』 1, 2008.

4) 청주지역 1세대 사림들에 대한 연구는 소략한 편인데 그 중 김의환, 「慕溪 趙綱의 鄕村社會 活動과 淸州士族의 動向」, 『조선시대사학보』 32, 2005 ; 이해준, 「규암 송인수 사후 평가와 추승활동」, 『유학연구』 16, 2007 ; 이해준, 「이유당 이덕수와 17세기 청주 사족」, 『우암논총』 2, 2009 등이 있어 주목된다.

록인 『玄琴東文類記』를 남긴 인물로만 알려져 있을 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원인 역시 부친 이잠과 마찬가지로 이득윤이 出仕에 적극적이지 않았기에 두드러진 이력이 없다는 점과 청주 지역에 기반을 둔 지방 문인이라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잠과 이득윤은 청주지역 1세대 대표적인 사람이자, 그들의 제자 역시 1세대 청주사람의 주요인물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16~17세기 이잠·이득윤 父子의 강학활동과 문인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첫째 당시 이잠·이득윤 부자의 학풍과 강학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고, 둘째 이잠·이득윤 문인의 구성과 활동, 그리고 이후 분기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16~17세기 전반 1세대 청주사람의 동향속에서 이잠과 이득윤 부자의 위치를 알아보고, 이잠·이득윤 부자의 학풍·강학활동과 그 문인들이 이후 청주사족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李潛·李得胤 父子의 學風과 講學活動

1. 慶州李氏 가문의 淸州 入鄕

청주지역의 사림 기반이 세력화 하는 16~17세기 전반에 청주지역에서 첫 번째, 호서좌도에서 두 번째로 莘巷書院이 건립(1570년)되었으며, 학문적으로 이름난 청주의 琅城八賢⁵⁾이 배출된다. 낭성팔현은 松齋

5) 주지하듯이 낭성팔현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타난 것은 조강의 문집 『모계집』 「부록」 권 3 택리조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州之名儒長德 前後繼出 如松齋 韓文貞忠·江受朴文度薰 圭菴宋文忠麟壽 及先生禾谷鄭忠愍賜湖 西溪李使君得胤 怡愉堂李侍郎德洙 晚洲洪孝定錫箕 諸公年代 雖懸竝同一鄉 而忠孝學問文章德業 卓冠于世 故世稱琅城八賢.”

韓忠(1486~1521)·江受 朴薰(1484~1540)·圭菴 宋麟壽(1499~1547)·慕溪 趙綱(1527~1599)·禾谷 鄭賜湖(1553~1616)·西溪 李得胤(1553~1630)·怡愉堂 李德洙(1577~1645)·晚洲 洪錫箕(1606~1680)을 가리킨다. 이 낭성팔현이 청주지역 1대 사림세력의 주요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낭성팔현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李潛李得胤 부자이다.

우선 이득윤 본인이 낭성팔현 중 한 명이고, 조강과 정사호는 이득윤과 교유한 인물이다. 정사호는 이득윤과 같은 나이인데, 서인으로 대사헌을 거쳐 형조판서까지 지낸 인물이다. 관직에서 물러나 있던 1609년 무렵 이득윤이 거처하던 가양리 인근 和谷(현 청주 미원 화창리)에 悠然亭을 지어놓고 기거했는데⁶⁾, 이득윤은 정사호와 자주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하였다.⁷⁾ 조강과 이득윤은 함께 신항서원을 창건하는 등 사람활동을 함께 전개한다. 그리고 이덕수와 홍석기는 이득윤의 수제자인 것이다.

이삼과 이득윤은 경주이씨로 이 가문이 청주에 입향한 것은 시조 李諤平로부터 23세손인 李公麟(1437~1509) 때이다. 다음은 청주에 입향한 慶州李氏 益齊公派의 간략한 가계도이다.

6) 李春英, 『體素集』下 「悠然堂記」 “吾友鄭侍郎夢與 其悠然堂其於某日 余別業在西原之禾谷也.”

7) 이득윤, 『서계집』 권2 「書」에 실린 <答鄭夢與賜湖>는 1608년 9월에 보내 준 세 통의 편지에 대해 감탄하고 이어서 逍遙之心에 대해 언급하며 鄭賜湖에게 답한 편지이다 ; <與鄭夢與>는 溪山의 풍경과 그것을 즐기는 樂之者의 즐거움을 술회하며 1609년 정사호에게 보낸 편지이다 ; <答鄭夢與>는 정사호의 밝은 지혜와 어짐에 대해 말하면서 1609년 정사호에게 답한 편지이다. 정사호의 문집인 『禾谷集』에는 이보다 더 많은 편지가 수록되어 있는데, 화곡이 서계에게 보낸 편지 11편과 서계가 화곡에게 보낸 편지 4편이 수록되어 있다. 정사호가 죽자 이득윤은 <祭鄭禾谷賜湖文>이라는 제문을 지어 정사호의 溫良한 용모와 春蘭과 같은 기상 및 벗을 대하는 성실함과 충성된 사람됨을 기리기도 하였다.

<표 1> 청주에 입향한 경주이씨익재공파 가계도⁸⁾

公麟----- 鼉 --- 渤 -----憬胤(2子) --大遂(섬계문인)
 (청주입향) (4子, 제천입향) --大建(섬계문인)--時發(서계문인)
 --大迪(섬계문인)
 ---鯤----- 淨(2子)----忠胤·孝胤(섬계문인)
 (8子)
 ---- 潛(4子)----得胤(섬계문인)--- 女(金鑑=서계문인)
 --- 弘有(서계문인)
 ---女(卞時望=서계문인)
 ---- 女(洪純愨=섬계문인)
 ---- 光胤(섬계문인)
 ---- 明胤(섬계문인)
 ---- 昌胤(섬계문인)

경주이씨 익재공파의 청주 입향조 李公麟은 益齋 李齊賢의 6대손으로 장인 朴彭年(1417~1456)의 죄에 연좌되어 관직에 나갈 수가 없었다. 그 뒤 사면되어 흥덕현감·함열현감·창평현감을 역임하면서 선정을 베풀었다. 이후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 때 아들 李龜의 죄에 다시 연좌되어 해남에 유배된 후 중종반정으로 풀려나서는 처향인 청주 수락동(현, 청주 미원면 가양리)에 입향하여 조용히 여생을 보낸다.

이공린은 鰲·龜·龜·鼉·鼈·鼈·鯨·鯤 등 여덟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 총명하고 강직하여 세칭 ‘八鼈’이라 하였다. 그러나 셋째아들 이원이 유배되자, 형제들은 흩어져 은거하였다. 이 중 이공린의 넷째 아들

8) (경주이씨)『家乘』과 行狀(卞時益 撰, 『서계집』), 墓碣銘(李景奭 撰, 『서계집』), 李潛墓碣草記(李光胤 撰, 『漢西集』 권6), 慶州李氏益齊公派大同譜(益齊公派大同譜編纂委員會, 2009), 『剡溪先生門人錄并西溪先生門人錄』(淸州水洛宗中 편집·간행, 1967)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李鼐은 처향인 제천으로 입향하였고, 이공린의 막내아들인 李鯤이 바로 부친이 있는 청주 수락동에 정착하였다. 이공린 - 이곤 부자의 청주 입향 후 경주이씨는 파평윤씨·남양홍씨·초계변씨·안정나씨 등과 통혼하면서 지역사족으로 자리잡게 된다. 또한 이곤의 아들인 이잠과 손자인 이득윤은 벼슬에 나아가기 보다는 재야에 있으면서 후학을 가르치고 교육자의 길을 걸었다.

청주에 정착한 이곤은 이른 나이에 사망했으나, 그 아들 剡溪 李潛은 학문에 전념하여, 1567년(선조 즉위년)에 진사가 되었다.⁹⁾ 그러나 대과를 치르거나 관직에 나아가기 보다는 향리인 청주 수락동에서 북서쪽으로 6km떨어진 石花里(현, 청주 북이면 석화리)에 머물면서 학문을 연구하고 강학에 전념한다.

西溪 李得胤은 석화리에서 이잠과 진주강씨 사이 장남으로 태어나 1559년 7세부터 부친에게서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孤靑 徐起(1523~1591)와 守庵 朴枝華(1513~1592)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이득윤은 1575년에 부친 이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더욱 공부에 매진하여 1588년에는 진사시에 입격했다. 그러나 부친과 마찬가지로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연구와 강학활동에 전념한다. 丁酉再亂이 일어난 1597년 이후에는 석화리에서 수락동 서계로 거처를 옮겼으며, 1609년에는 다시 옥화동(현, 청주 미원면 옥화리)으로 이거하여 학문탐구와 강학활동을 전개했다.

청주에 입향한 경주이씨 가문 자제들 역시 家學으로 이잠과 이득윤에게 배우게 된다. 이잠 문인록에 경주이씨 집안 친족이 12명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이잠의 문인 중 단일 성씨로는 가장 많다. 우선 이잠의 아들 李得胤·李光胤·李明胤·李昌胤 4형제가 모두 부친에게 가르침을 받는다. 이득윤·이광윤·이명윤은 석화리에 거주, 막내 이창윤만 충주

9) 『隆慶元年丁卯十月十九日司馬榜目』 “선조 즉위년(1567) 丁卯 式年試 진사 三等 17위”

에 거주하면서 수학한다.

이공린의 아들 중 堤川으로 입향한 李鼐의 손자인 李憬胤의 아들 3형제 李大濬·李大建·李大迪도 모두 이잠의 제자이다. 이중 이대건은 제천에서 다시 진천 초평으로 입향하게 된다. 이잠의 형 李淨(?~1594)은 석화리에서 文義 牛鹿洞(현, 청주 현도면 우록리)에 입향하였는데, 그 아들인 李忠胤과 李孝胤이 숙부인 이잠에게 배운다.

이잠 문인록과 마찬가지로 이득윤의 문인록에도 경주이씨가 10인으로 가장 많다. 문인 중 李光胤(1564~1637)·李昌胤은 이득윤의 동생으로 부친 이잠의 문인이기도 하며, 부친이 돌아가시자 형인 이득윤에게 수학했다. 이중 이광윤은 1585년 진사시에 입격이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1593년 의병장 李介立 등과 함께 의병활동을 하였다. 1594년 문과합격 이후 형조좌랑·예조좌랑 등을 거쳤다. 그리고 1605년에는 임진왜란 당시의 공으로 扈聖原從功臣에 녹훈되었다.¹⁰⁾ 1624년 이괄의 난 때도 창의하였다. 문인 李弘有(1588~1671)는 이득윤의 아들이다.

그 외에도 이잠 제자인 이대건의 아들로 진천 초평에 거주했던 李時發(1569~1611)도 이득윤에게 와서 배운다. 이시발은 1589년(선조 22) 문과 급제 이후 임진왜란, 이몽학의 난, 이괄의 난 때 활동했던 인물이다. 청주 석화리의 경주이씨 가계가 이득윤 사후 노론적 성향을 보였다면, 이대건 입향으로 자리를 잡은 진천 초평의 경주이씨 가계는 이후 소론의 성향을 보인다.¹¹⁾

10) 이광윤, 『濩西集』, <年譜>.

11) 1695년(효종 10) 신항서원의 사액을 청한 李慶會의 아들 李寅賓과 莘巷書院 유생으로 있던 숙종 때(1675년)에는 池若海 後嗣事件과 관련하여 趙益寬·權大夏 등과 함께 宋時烈·宋國士 등에 맞서 치열한 鄉戰을 전개한 李寅馨 형제는 소론으로 활동했다. 이대건의 아들이자 이인형의 작은할아버지인 이시발의 손서는 소론의 영수 최석정이었다.

2. 이득윤의 學風

이잠의 경우 그 스승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청주에 입향한 부친 이곤도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다른 스승에 대한 기록이 없다. 따라서 1566년 진사가 될 때 까지 홀로 自得之學으로 학문에 매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이득윤은 우선 그의 스승으로 부친을 들 수 있다. 실제 이잠의 문인란에 이득윤이 기록되어 있다. 이득윤은 1558년 무렵 6~7세 부터 부친에게 나아가 1575년 23세에 부친이 사망할 때까지 20여 년 동안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가르침을 받는다. 이득윤이 처음 글을 배울 때, 부지런히 책을 읽고 힘써 암기하자 부친 이잠이 “이 아이는 뜻을 돈독히 하고 게으르지 않으니 훗날 마땅히 큰 선비가 될 것이다.”라고 하며 아꼈다고 한다.¹²⁾

부친 외에 이득윤의 스승으로는 서기와 박지화를 들 수 있다. 孤靑徐起(1523~1591)와 이득윤의 사제관계는 오랜 기간 이어진다. 1572년(선조 5) 이득윤은 약관을 넘기자 서기의 학문이 독실하다는 말을 듣고 공주로 가서, 대학·심경·주역·계몽 등의 책으로 질의한다. 그리고 1578년 26세 다시 찾아가 논하자 서기가 놀라서 “학문으로 우리나라에 이름난 자가 그대가 아니고 누구리오” 하였다고 한다.¹³⁾ 이득윤은 1589년 鄭汝立의 옥사사건에 鄭介淸이 연좌되자 정개청과 안면이 있는 스승 서기의 안위가 걱정되어 스승 곁에서 십여 일 머무르기도 하였다.¹⁴⁾ 또 1591년 스승 서기가 세상을 떠나자 곡했다.¹⁵⁾ 이득윤은 서기

12) 이득윤, 『서계집』 권4 「부록」 <行狀> “年甫六七 已有成人器度 始受書 不待勸勉 能勤讀強記 教官公奇愛之曰 此兒篤志不懈 異日當爲大儒”.

13) 이득윤, 『서계집』 권4 「부록」 <행장> “年逾弱冠 聞徐順窩起業儒篤學 卽往從之 質之以大學 心經周易啓蒙等書 斂而遂家 用工益力 數年後 更就論難 則順窩驚歎曰 以學問名吾東者 非吾措大而誰”.

14) 서기, 『孤靑先生遺稿』 “己丑歲鄭汝立之獄 鄭介淸亦與收坐 李西溪求自湖南

의 제문인 <祭徐頤窩起墓文>¹⁶⁾을 짓기도 했는데, 제문에서 이득윤은 스승 서기의 眞淳한 성품과 부지런한 학문적 태도를 기리고 있다. 또한 『徐山丈起傳』의 발문인 <徐山丈起傳後敘>¹⁷⁾을 지었는데, 이 글에서는 스승 서기를 순박하고 부지런하며, 배우기를 힘쓰는 자라고 기렸다.

또 다른 스승인 守菴 朴枝華(1513~1592)는 이미 문장과 행실이 세상에 이름이 있었는데 청주와 멀지 않은 淸淵의 조곡촌(청안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득윤이 보다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즉, 이득윤은 1574년 22세에 역학에 밝은 박지화를 찾아가 평소 명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득윤과 만난 이후 박지화는 학자들에게 말하기를 “易學에 마음을 두고 두루두루 깨닫고 정미한 자는 이 아무개만한 이가 없다”¹⁸⁾라며 이득윤을 칭찬하였다. 또한 이득윤 역시 스승 박지화가 세상을 떠난 1년 뒤에 박지화의 제문인 <祭朴守庵先生枝華文>을 짓기도 하였는데, 여기에서 박지화의 고명한 학문과 精微함을 다한 道를 기리고 있다.¹⁹⁾

그런데 서기와 박지화는 모두 16세기의 처사형 학자 花潭 徐敬德(1489~1546)의 수제자이다. 서경덕은 自得之學을 강조하였으며, 周易을 중시하고, 절충적·개방적인 학문적 자세를 견지하였으며, 화담학과를 형성한 인물이다. 이득윤의 스승 박지화와 서기는 화담학과 중에서도 특히 주역을 중시했으며, 道家思想에 심취했던 인물들이었다.²⁰⁾ 또한 박지화가 서기를 위해 묘갈명을 짓기도 할 정도로 둘은 각별한 사이

謂孤青曰介清意欲 援引先生 奈何 孤青曰 吾與介清有面 雖援 如之何 西溪留十餘日”

15) 『慶州李氏先世實錄』 <西溪先生年譜>.

16) 이득윤, 『서계집』 권3 「祭文」.

17) 이득윤, 『서계집』 권4 「題跋」.

18) 『慶州李氏先世實錄』 <西溪先生年譜>.

19) 이득윤, 『서계집』 권3 「祭文」.

20) 신병주, 「화담학과 근기 사람의 사상」, 『국학연구』 7, 2005, 61쪽.

였다.²¹⁾ 즉 이득윤은 서경덕·서기·박지화로 이어지는 화담학파에게 학문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득윤은 서기와 박지화 등의 스승의 곁에 계속 머물기 보다는 부친에게 배우고 한편 ‘自得之學’·‘爲己之學’의 학문적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학문탐구에 열중하였다.²²⁾ 특히 이득윤은 서기·박지화와 마찬가지로 『주역』에 정통했다.

『선조실록』 27년(1594) 11월 12일조에 “상이 『周易』을 강하였다 … 상이 이르기를, ‘儒士 중에 易學을 아는 자가 있는가?’하니 (우의정) 김응남이 아뢰기를, ‘淸州사람 이득윤이 역학을 이해한다 합니다.’하였다 … 상이 이르기를, ‘연소한 문사 중에 역학을 아는 자는 누구인가?’하니, 김응남이, ‘그런 사람은 듣지 못했습니다.’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사를 통해서 보면 1594년 당시 42세 되던 이득윤의 주역에 대한 수준은 이미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사실이 조정에게 알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602년에 선조는 『주역』에 주를 단 것에 오류가 많아 周易校正廳을 설치하라고 명하고, 역학에 밝은 자를 가려 그 일을 담당하게 하였는데, 50세의 이득윤이 발탁되어 참여하게 되었다. 이득윤의 동생이자 문인이기도 한 李光胤(1564~1637) 역시 주역에 정통하여 형과 함께 교정청에 나아간다. 이득윤은 1603년 주역을 교정한 공으로 왕이 공조정랑, 형조정랑, 의빈부도사 등에 거듭 제수되었으나 나가지는 않고, 청주로 돌아와 다시 강학활동에 매진한다.²³⁾ 그리고 1606년 수락동 서계에서 강학활동을 할 당시 청주목사로 내려온 韓百謙이 주역의 『周穆

21) 박지화, 『守庵遺稿』 권2 <孤靑居士徐公墓碣銘>.

22) 이득윤, 『서계집』 권4 『附錄』 <行狀> “先生常興慕古人 專於爲己之學”

23) 『慶州李氏先世實錄』 <西溪先生年譜> “壬寅(1602년) 五十歲 … 命設局校正先生與弟光胤 同被首薦 癸卯(1603년) 五十一歲 四月 除工曹佐郎 五月 尋遷刑曹 皆辭疾 未幾 除儀賓都事 驟陞者 以校易時 有陸絅之命故也 先生促裝趨謝 上特賜宮饋 明日 更還故山”

卦變圖』를 간행하자, 발문을 짓는다.²⁴⁾

뿐만아니라 이득윤 사후 그를 기리는 만사에 역시 이득윤이 주역에 정통했음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다. 金尙憲이 지은 만사에는 이득윤이 易學에 조예가 깊었음을 나타내고 있다.²⁵⁾ 또한 이득윤의 문인으로 병자호란때 主和論을 이끈 崔鳴吉의 만사에는 “易 가운데 의심나는 곳 누구에게 물어보나, 홀로 遺篇을 잡고 새벽등불과 짝을 하네”라고 기록하고 있다.²⁶⁾ 역시 이득윤의 문인인 李耆의 만사에는 “그동안 힘쓴 것은 오로지 周易이며, 고요한 가운데 정신을 기쁘게 한 것은 다만 거문고뿐”이라고 하였다.²⁷⁾ 이득윤의 문인이자 사위이기도 한 卞時望은 “평생의 進退는 책상머리의 周易에게 맡기고, 반평생의 회포는 무릎위의 거문고에 맡겼노라”라고 하고 있으며²⁸⁾, 문인 金景翼은 “고요한 가운데 거문고 울리니 가난도 즐겁고, 한가한 가운데 易을 즐기니 늙음도 두루 도타워라”라고 하였고,²⁹⁾ 문인 洪錫箕는 “은미함을 찾아서 조화의 경지를 엿보고, 주역을 보아 귀신같이 절신한 경지를 얻었네.”라고 하여³⁰⁾ 모두 역학에 통달한 스승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러한 이득윤의 행적과 기록을 통해 보면 그가 얼마나 주역에 조예가 깊었는지를 알 수 있다.

24) 이득윤, 『서계집』 권3 「題跋」 <周穆卦變圖跋>.

25) 김상헌, 『淸陰集』 권6 「七言律詩」 <李槐山德胤挽詞 深於易學> “先朝徵士幾人餘 聞道西溪亦廢廬 授學楊何誰達意 辭官龔舍獨清譽 草深通德門前路 塵掩包羲卦後書 蹉跎百年終不面 哀歌千里重躊躇”

26) 이득윤, 『서계집』 권4 「附錄」 <挽詞>, “易中疑處從誰問 獨把遺篇伴曉燈”(崔鳴吉).

27) 이득윤, 『서계집』 권4 「부록」 <만사>, “年來着力惟義易 靜裏怡神只古琴”(李耆).

28) 이득윤, 『서계집』 권4 「부록」 <만사>, “一生進退床頭易 半世襟懷膝上琴”(卞時望).

29) 이득윤, 『서계집』 권4 「부록」 <만사>, “靜裏鳴琴貧亦樂 閑中翫易老彌敦”(金景翼).

30) 이득윤, 『서계집』 권4 「부록」 <만사>, “討微窺造化 觀易得神功”(洪錫箕).

이득윤은 흔히 서인으로 알려져 있고, 이득윤 집안의 당색 역시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서인 노론의 행보를 보이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득윤이 살았던 17세기 전반은 지방에까지는 침예한 당색의 대립이 보이지 않는 시기이다. 이득윤 역시 그 생전의 활동을 보면 화담학파였던 박지화·서기에게 학문적 영향을 받았으며, 서인인 김장생이나 정사호, 남인인 정구와 두루 학문적인 교류를 하고 친분을 유지하며, 대립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 동생 이광윤 역시 남인인 月川 趙穆(1524~1606)의 제자이다.

특히, 이득윤은 沙溪 金長生(1548~1631)과 서신 교류를 통하여 태극도와 역학에 관한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는데, 서계집에 김장생과의 서신이 5통 기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1608년에 보낸 편지인 <答金希元問目>은 옥화구곡에 거주할 당시 김장생이 보낸 22개 항목의 질문에 대해 하나하나 답하여 김장생에게 돌려보낸 답장이다. 주로 太極圖와 易學에 관해 토론한 내용으로 程傳과 本意를 언급하며 문답하고 있다.³¹⁾ 1617년에는 김장생이 이득윤의 완역재로 찾아와 함께 孟子의 「浩然章」을 논하기도 하였다.³²⁾

또 이득윤은 자신의 학문의 연원을 주자에게 두고 있으며 이황을 모범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³³⁾ 그리하여 1611년(광해군 3) 三南

31) 이득윤, 『서계집』 권2 「書」의 총 24편의 편지 중 김장생에게 보낸 편지가 5편이다. 먼저 <答金希元問目> (1608년)은 김장생과 역학에 대해서 논한 것이다. <與金希元長生>(1608년)에는 배운 바 학문을 떨칠 수 없는 것에 대한 한탄 및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즐거움 등에 대해 논한 것이다. <與金希元>(1609년)은 덕을 쌓는 문제와 홍역으로 인한 집안의 우환 및 『近思問目』가운데 있는 誤字에 대해 언급한 편지이다. <與金希元>(1623년)은 고질병 때문에 관직에 제수되었어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다. <與金希元>은 자신의 병과 만나고 싶어하는 정 등에 대해 말하면서 김장생에게 보낸 편지이다.

32) 윤승임, 『주일재집』 <행장>.

33) 이득윤, 『서계집』 권4 「부록」 <만사> “淵源朱仲晦 模範退陶翁”(변시익).

지방에 통문을 보내 이언적과 이황을 무고한 鄭仁弘을 성토하기도 하였다.³⁴⁾ 그리고 이황의 제자 鄭述(1543~1620) 등과 교유하면서 학문을 연마하였다.

정구의 『寒岡言行錄』類編에 보면 敎人 이서가 “밤에 夙夜齋에서 선생을 모실 적의 일이다. 당시에 행보가 이득윤과 易의 이치에 대해 논하면서 매번 모순에 빠지자, 선생이 ‘역은 하나인데 어찌 두 가지 뜻이 있겠는가’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득윤은 또 1620년에는 鄭述의 訃告를 듣고 <慰寒岡門人>이라는 글을 지어 그 문인들을 위로하기도 하였다.³⁵⁾ 그리고 정구의 제문인 <祭寒岡鄭先生文>을 지어 정구의 醇厚한 자질과 溫潤한 기상 및 경서를 해석하여 의리를 발휘해 내는 빼어난 학문을 기렸다.

이와 같은 학문활동을 통해서 보면 16~17세기 전반 청주지역의 대표적 사림인 이득윤은 경직되지 않고 다양한 학풍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부친 뿐 아니라 서기와 박지화 등 화담학파의 스승에게도 영향을 받았으며, 당색을 초월하여 서인이나 남인들과도 학문적인 교류를 이어나갔다. 또한 이득윤은 주역 연구에 매진하여 상당한 경지에 올라 있었다. 이득윤의 동생이자 문인인 이광윤과 이득윤의 문인이자 사위인 卞時望, 이득윤 문인 한백겸과 이상형 역시 주역에 능통하여, 이득윤의 학문적 특징을 이어가고 있었다.³⁶⁾

34) 이득윤, 『서계집』 권3 「雜著」 <下三道通文> 이언적과 이황의 德業과 志節을 기리면서 大平館에서의 모임을 통지하기 위해서 三道에 내려보낸 通文이다.

35) 이득윤, 『서계집』 권2 「書」 <慰寒岡門人>.

36) 변시망은 10년간 『주역』을 읽고 조정에 천거되어 음사로 영송전참봉에 임명되었다.

3. 이잠·이득윤 부자의 강학활동

이잠은 1567년(선조 즉위년) 40세에 진사가 되었다. 그러나 관료에 나아가기 보다는 강학활동에 전념한다. 이잠의 묘갈문에 보면 “청주 關書齋로 은거하여 향리의 수재를 가르치는 것을 일삼았다. 經史를 가르쳐서 날마다 考課하고 차례차례 법도가 있게 되자, 이에 원근의 학자들이 소문을 듣고 모인자가 성대하였다. 黨塾(벽서재)의 故規가 있어서 재목에 따라 성취한 자가 거의 백여 인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³⁷⁾ 이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이잠의 제자는 100여 명에 가까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이잠이 학문으로 이름나자, 조정에서는 永崇殿 參奉과 童蒙敎官에 제수하였으나 이잠은 모두 나가지 않고, 청주에서의 강학활동에 열중했다.

이에 비해 아들 이득윤의 강학활동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시작된다. 이득윤이 18세인 1570년(선조 3)에 낭성팔현의 한 사람인 조강, 그리고 변경수와 함께 상의하여 신항서원의 전신인 有定書院 창건에 관여한 것이다.³⁸⁾ 신항서원은 1695년에 화양서원이 세워지기 전까지 청주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청주지역의 학문과 여론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것을 보면 이득윤은 약관이 되지 않은 나이에 이미 청주지역에서 뛰어난 학문으로 인하여 명망있는 인사로 거론되고 있었고, 이득윤 스스로도 서원 건립과 같은 강학활동에 많은 관

37) (경주이씨) 『家乘』 <剡溪先生墓碣文(宋近洙 撰)> “早喪怙恃 能自力學 丁卯成進士 去隱居淸州關書齋 以教誨鄉秀爲事 授以經史 輪日考課 循循有法 於是 遠近學者 聞風坌集 憇然 有黨塾故規 隨材成就者 殆百餘人” ; 다만 묘갈문에 기록된 關書齋가 경주이씨가 입향하여 세거한 청주 북이면 석화촌인지, 선영이 있는 미원 수락동인지는 정확치 않다.

38) 宋麟壽, 『圭菴集』 <年譜> “建書院于淸州 慕溪趙綱西溪李得胤進士卜景壽諸公 相議創立” ; 趙綱, 『慕溪集』 <年譜> “先生嘗對李西溪得胤 卞上舍景壽 與州之諸章甫有議者 相議曰”

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⁹⁾

이잠이 1575년 세상을 떠나자 23세의 이득윤은 미원 가양리 수락동 부친의 묘소 아래에 3년간 시묘살이를 한다. 이때 여막의 이름을 追遠堂이라하고 시묘살이 중에도 더욱 공부에 매진하였고, 이후 1588년(선조 21) 36세에 진사시에 합격했다. 그러나 부친과 마찬가지로 문과시험 준비를 하거나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탐구에 매진한다. 이것을 통해 보면 이득윤에게 이잠은 부친이자 스승이며, 교육자로서 삶을 보여준 인생의 모델이 되었던 것이다.

언제부터 이득윤이 문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강학활동을 전개하였는지는 명확치 않다. 다만 이득윤의 <행장>에 이득윤의 풍문을 들은 원근의 선비가 찾아와 배우기를 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⁴⁰⁾ 또 「서계선생연보」에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문도 수백인과 左龜山⁴¹⁾으로 피난을 하고, 인근의 옥화동 安心谷에 東西齋를 창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⁴²⁾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이득윤은 뛰어난 학문으로 이름나 청주지역 인근의 문인들이 모여들었고, 40세가 되던 1592년에 이미 문인이 수백여 명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 인근 산으로 피난을 가셔도 문인들이 기거할 수 있는 동재와 서재를 지어놓고, 문인들의 강학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채 끝나지 않은 1597년 이득윤은 모친 진주강씨(1532~1597)

39) 1570년은 이잠이 죽기 5년 전으로 노쇠한 부친의 뜻을 전하는 형식으로 18세의 이득윤이 창건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0) 이득윤, 『서계집』 권4 「부록」 <行狀> “嘗慨然以興起斯文訓進後生爲己任…… 遠方之士 莫不聞風願學”

41) 좌구산은 수락동에서 북동쪽으로 약 6km 떨어진 곳이다.

42) 『慶州李氏先世實錄』 <西溪先生年譜> “壬辰四十歲 值龍蛇之藪 與門徒數百人 避兵於左龜山 讀書於玉華洞 扞安心谷東西齋”; 이득윤, 『서계집』 권3 「祝文」 <安心谷土地神文>.

의 상을 당하였다. 그러자 부친때와 마찬가지로 시묘살이를 시작하였고, 다음해인 1598년 수락동 모친의 묘 옆 작은 시냇가에 翫易齋를 지어놓고 학문에 매진하였다. 그리고 이때 자호를 ‘西溪’라 하였다.⁴³⁾ 즉, 이득윤의 호 서계는 모친묘가 있는 수락동 선영의 작은 시냇가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주거지도 석화리에서 선영이 있는 수락동 서계로 옮기고 본격적인 학문탐구와 강학활동을 전개한다. 이득윤은 수락동 완역재에서 하루종일 침식을 잊어가며 글을 읽었는데, 이때 지은 <완역재명>이 『서계집』에 기록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韋編三絕한 성인 멀리 갔고, 弄丸한 사람도 없으니 의지할 것은 한권의 책뿐 …… 보고 또 완상하여 귀신도 엿보지 못하고, 아침저녁으로 생각하고 게을리 하지 않아 지금은 包義가 되었네”⁴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완역재명을 살펴보면 당시 이득윤은 완역재에서 특히 주역에 매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드디어 1608년 56세 때에는 자신이 창건에 관여하였던 有定書院 院長에 추대된다. 그러나 이득윤은 자신의 우매함을 내세우면서 義時才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원장을 사양한다.⁴⁵⁾ 그러나 청주 유생들은 다시한번 추대의사를 밝히고, 이득윤은 다시 ‘원장이 되려면 道德과 文章이 師表가 되어야 하고 明經과 行修가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며 古속에 박통하고 忠信과 愿慤을 두루 갖추어야 하는데 자신은 그 가운데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원장을 사양한다.⁴⁶⁾ 그러나 이득윤은 거듭된 요청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원장을 수락하였고, 신항서원의 원장으로서 강학 활동의

43) 『慶州李氏先世實錄』 <西溪先生年譜> “戊戌四十六歲 構精舍於先塋 側小溪東 名其齋曰玩易 川曰不舍 因以自號西溪”

44) 이득윤, 『서계집』 권3 「銘」 <翫易齋銘> “絕韋聖遠 弄丸人亡 所持一部 千載猶光 觀之翫之 鬼神莫窺 朝焉夕焉 念茲在茲 一此不懈 爲今包義”

45) 이득윤, 『서계집』 권3 「雜著」 <辭有定院長文>.

46) 이득윤, 『서계집』 권3 「잡저」 <再辭有定院長文>.

들을 한층 넓힐 수 있었다. 그해 이득윤은 김장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서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즐거움 등에 대해 논하고 있다.⁴⁷⁾

1609년(광해군 1) 이득윤은 수락동 서계에서 동남쪽으로 8km 떨어진 옥화동으로 또 거처를 옮긴다. 그리고 옥화동의 玉華五曲에 春風堂과 秋月軒 등을 건물을 짓고, 학문탐구와 강학활동에 전심한다. 이 당시 강학활동의 모습의 일단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이득윤의 제자 윤승임(1603~1688)의 행장이 전한다. 이에 의하면 “윤승임이 7세가 되던 1609년 옥화동에 있던 (이득윤을) 새벽부터 밤까지 모시며 涵泳하고 體認하였다. 이때 이덕수·이시발·변시익과 함께 이득윤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선생의 말씀을 존경하여 믿고 잠심하여 연구하였다.”⁴⁸⁾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문인들은 어린나이부터 이득윤과 함께 기거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학문에 열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1609년 당시 이덕수 32세, 이시발 40세, 변시익 11세, 윤승임 7세로 다양한 연령의 문인들이 문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잠과 그 아들 이득윤 부자는 16세기~17세기 초반 2대에 걸쳐 청주지역 일대의 재지사족들의 강학활동에 적극적으로 이잠의 경우 진사시에 입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청주 벽서재에서 100여 명의 문인을 길러낸다. 이득윤 역시 진사시 입격 이후에도 부친과 마찬가지로 강학활동에 열중하여, 1592년에 옥화동에 동서재, 1598년 수락동에 완역재, 1609년에 옥화동에 춘풍헌과 추월헌을 각각 지어 놓고 수백명에 이르는 문인들을 강학한다. 이잠과 이득윤의 이런 노력이 바로 청주 지역 사족의 학문발전을 이루어 냈고, 1570년 호서좌도에서 두 번째로 청주에 신항서원을 건립할 수 있었으며, 이득윤을 비롯하여 이잠-이득윤 부자의 문인들이 번갈아 원장을 지내며 서원을 운영할 수 있는 기

47) 이득윤, 『서계집』 권2 「서」 <與金希元長生>(1608년).

48) 윤승임, 『주일재집』 <행장> “先生 尊信師說 潛心研究”

틀이 되었던 것이다.

Ⅲ. 이잠·이득운 부자의 門人 構成과 分岐樣相

1. 이잠의 문인

剡溪 李潛(1528~1575)의 묘갈문에 보면 “청주 關書齋로 은거하여 향리의 수재를 가르쳤는데 …… 거의 백여 인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⁴⁹⁾ 이잠의 묘갈문과 비슷하게 문인록에도 100여 명의 문인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즉 1778년 후손 李圭益 편집한 『剡溪先生門人錄并西溪先生門人錄』 「문인록」⁵⁰⁾과 경주이씨 『家乘』 「문인록」에 이잠의 문인 71인, 往來講學한 인물 22인, 총 93인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를 수록된 순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이잠 문인록(71인)

성명	生年	본관	거주지	과거	성명	生年	본관	거주지	과거
羅允愿	1544	安定	清州新峴	生員	金應鐸	1557	慶州	清州南京谷	進士
羅允忠	1545	安定	清州飛鴻	鄉試,文科	金應鼎	1557	慶州	清州南京谷	鄉試
金大奇	1546	尙州	報恩	鄉試	金孝伯	1557	淸風	京	
李大濬	1547	慶州	堤川	進士	尹公亮	1557	坡平	清州弁巖	
朴冲龍	1547		報恩	鄉試	李大樹	1557	全州	清州劍山	文科
羅允恕	1547	安定	清州飛鴻	鄉試	金淑	1557		燕岐	

49) 경주이씨 『家乘』, 「剡溪先生墓碣文」(宋近洙 撰) “早喪怙恃 能自力學 丁卯成進士 去隱居清州關書齋 以教誨鄉秀爲事 授以經史 輪日考課 循循有法 於是 遠近學者 聞風坌集 愜然 有黨塾故規 隨材成就者 殆百餘人”

50) 1967년 淸州水洛宗中 간행.

李齡百	1548	加平	報恩		李貞胤	1558	慶州	清州石花村	鄉試
金 記	1549	清風	清州梧根	武科	柳 沃	1558	文化	清州楓井	
趙 瑄	1550	平壤	清州酒城		李亨男	1559	固城	清州楓井	
李大建	1550	慶州	堤川	進士	金應鍵	1559	慶州	清州南京谷	進士
洪純愨	1551	南陽	清州板橋	進士	李天機	1559	慶州	清州楓井	
申 櫟	1551	鵝洲	清州松洞	生員	朴永命	1560	順天	清州松枝谷	鄉試
金應鍾	1551	慶州	清州南京谷	鄉試	金伯難	1560	尙州	報恩	
金 誠	1551	慶州	清州棠谷	生員	鄭 遲	1560	瑞山	清州馬巖	
金河瑞	1551	安東	清州梧根	進士	盧克震	1561	交河	清州駕山	蔭補
李忠胤	1552	慶州	文義牛鹿洞		卞惟精	1561	草溪	清州飛鴻	
李大迪	1552	慶州	堤川	生員	申景淡	1561	高靈	清州末里谷	武科
李得胤	1553	慶州	清州石花村	進士	鄭義吉	1561	東萊	清州松枝谷	
柳昌緒	1553	文化	清州飛鴻		金應鑑	1561	慶州	清州南京谷	鄉試
申 櫓	1553	鵝洲	清州	生員	金仁伯	1561	清風	京	漢城試
金洛瑞	1555	安東	清州梧根	進士	閔汝沃	1561	驪州	清州梧根	
金忠伯	1554	清風	京		申 鍵	1561	鵝洲	清州松洞	
洪純善	1554	南陽	板橋	鄉試	尹起聘	1562	咸安	文義	武科
羅允憲	1554	安定	清州飛鴻		閔汝淑	1563	驪州	清州梧根	
韓應南	1554	清州	木川	鄉試	金克諧	1563	慶州	清州南京谷	
柳起汀	1555	晉州	清安		申守淇	1563	高靈	청주말리곡	
柳仁得	1555	文化	清州楓井		李光胤	1564	慶州	清州石花村	進士,文科
金 岏	1555	安東	清州梧根		李大适	1564	慶州	堤川	
李之珪	1555	固城	清州楓井	鄉試	辛 澈	1564	靈山	青山馬場	
柳 業	1555	晉州	文義		池景湛	1564	忠原	清州首谷	武科
卞惟清	1556	草溪	清州飛鴻	生員	申景澄	1565	高靈	末里谷	武科
金敬伯	1556	清風	清州梧根		李明胤	1566	慶州	清州石花村	
李宗善	1556	全義	清州梧根		卞惟寅	1566	草溪	清州飛鴻	
蔡 容	1556	仁川	清州民朴	生員,文科	金應鍊	1566	慶州	清州南京谷	進士,文科
李震慶	1556	全義	報恩		李昌胤	1572	慶州	忠州	進士
李孝胤	1557	慶州	文義牛鹿洞						

<표 3> 이잠 왕래강학 문인록(22인)

성명	生年	본관	거주지	과거	성명	生年	본관	거주지	과거
金質重	1555	光山	清州 駕山	文科	孫希彥	1544	清州	清州 釜項	鄉試
孫希濬	1533	清州	清州 釜項	生員	申活	1544	高靈	清州末里谷	進士
李公瑞	1536		清州 飛鴻		申灝	1544	高靈	清州末里谷	司馬
卞景福	1538	草溪	清州 飛鴻		申潑	1546	高靈	清州末里谷	鄉試
蔡有溫	1538	仁川	清州		金岷	1546	安東	清州梧根	
盧一元	1539	交河	清州 駕山		辛應珪	1547	靈山	清州 釜項	
柳灑	1541		京		辛景行	1547	靈山	清安	進士,文科
李公瑾	1541		清州 飛鴻		朴坤元	1547	咸陽	清州 漁巖	進士
卞景祿	1542	草溪	清州		池景淸	1548	忠州	清州 首谷	生員
李大春	1542	清州	原州	鄉試	鄭之榮	1549		陰城	鄉試,武科
元任			原州	鄉試	鄭雯	1550	河東	沃川	生員

문인록에 기록된 71인과 왕래강학 문인록에 기록된 인물은 22인은 대부분 호서지역의 사족들로, 생년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문인록에 기록된 인물은 이잠의 청주 벽서재에 머물러 수학했던 것으로 보이며, 왕래강학으로 기록된 인물은 수시로 드나들며 배운 것 같다. 따라서 문인록에 기록된 인물들이 왕래강학에 기록된 인물에 비해 좀 더 집중적으로 이잠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왕래강학한 문인들은 1533년부터 1555년생으로 1528년 생인 이잠과의 나이차이가 적게는 5살 정도로 난다. 즉 이미 학문의 수준이 어느 정도 성취된 인물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왕래하며 수학했던 것으로 보인다.

93명의 이잠 문인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청주에 거주한 인물이 65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그 외 보은에 5인, 문의에 4인, 제천에 4인, 서울에 4인, 청안에 2인, 원주에 2인, 음성·청산·옥천·충주·연기·목천에 각각 1인이 거주하고 있다. 즉 이잠 문인의 70% 정도가 청주거주 인물

들인 것을 볼 수 있다.

또 이잠 문인 93명 중 文科 합격자가 6명, 司馬試 합격자가 21명, 武科 합격자가 7명, (향시)入格⁵¹⁾자가 23명이다. 즉 총 57명이 각각의 과거시험에 합격하고 있어 합격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청주에 거주한 65명 중에서도 향시입격을 포함한 과거합격자가 37명이나 된다.

6명의 문과합격자는 나운충·채용·이광윤·김응간·김질중·신경행이다. 羅允忠(1545~?)은 안정나씨로 청주 비룡에 거주했고, 이득운 제자 나만기의 조부이기도 하다. 蔡容(1556~?)은 인천채씨로, 청주 문박에 거주했고, 이잠 문인인 蔡有溫의 아들이다. 李光胤(1564~1637)은 이잠의 둘째 아들로 형 이득운과 함께 교정청에서 주역을 교정할 정도로 학문이 뛰어났다. 金應鍊(1566~?)은 경주김씨로 청주 南京谷에 거주했다. 金質重(1555~?)은 光山金氏로 청주 駕山에 거주했다. 辛景行(1547~?)은 靈山申氏로 청안에 거주했다. 신경행은 이몽학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청난공신에 임명된 인물이다. 이잠의 92명의 문인들의 본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이잠 문인록에 기록된 문인의 성씨별 분류

(*往=왕래강학인, 본관이 같은 인물이 2인 이상인 경우 수록)

본 관	성 명
慶州李 (12인)	李大遂 李大建 李忠胤 李大迪 李得胤 李光胤 李孝胤 李貞胤 李天機 李明胤 李昌胤 李大适
慶州金(8인)	金應鍾 金誠 金應鐸 金應鼎 金應鍵 金應鑑 金應鍊 金克諧
高靈申(6인)	申活(往) 申灝(往) 申潑(往) 申景淡 申守淇 申景澄
草溪卞(5인)	卞景福(往) 卞景祿(往) 卞惟清 卞惟精 卞惟寅
淸風金(5인)	金記 金忠伯 金敬伯 金孝伯 金仁伯
安定羅(4인)	羅允愿 羅允忠 羅允恕 羅允憲

51) 문인록에 ‘入格’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향시 입격을 나타낸다.

安東金(3인)	金河瑞 金洛瑞 金昱
文化柳(3인)	柳昌緒 柳仁得 柳沃
鵝洲申(3인)	申櫟 申櫓 申榘 신력 신로 신건
靈山辛(3인)	辛應珪(往) 辛景行(往) 辛澈
南陽洪(2인)	洪純慤 洪純善
淸州孫(2인)	孫希濬(往) 孫希彥(往)
尙州金(2인)	金大奇 金伯難
驪州閔(2인)	閔汝沃 閔汝淑
晉州柳(2인)	柳起汀 柳業
固城李(2인)	李之珪 李亨男
全義李(2인)	李宗善 李震慶
交河盧(2인)	盧一元(往) 盧克震
忠州池(2인)	池景淸(往) 池景湛
仁川蔡(2인)	蔡有溫(往) 蔡容

<표 4>를 살펴보면 이잠의 문인은 慶州李氏가 12인으로 가장 많고, 慶州金氏 8인, 高靈申氏 6인, 草溪卞氏 5인, 淸風金氏 5명, 安定羅氏 4인, 安東金氏 3인, 文化柳氏 3인, 鵝州申氏 3인, 靈山申氏 3인, 南陽洪氏 2명 순으로 분포한다. 경주이씨는 이잠의 집안이므로 12명이나 되는 집안 친족들이 이잠에게 수학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주김씨⁵²⁾의 경우 金應鍾·金誠·金應鐸·金應鼎·金應鍵·金應鑑·金應鍊·金克諧 등 8명이 이잠에게 배웠다. 김성을 제외한 7명이 모두 청주 南京谷 거주로 기록되어 있다. 문인 중 김응탁·김응건·김응련은 형제사이며, 김응정과 김응중·김응감 형제 역시 김응탁의 재종제였다. 즉, 경주김씨 집안은 종형제들 6명이 한꺼번에 와서 수학 한 것이다. 이 중 김응간이 문과에 합격하였으며, 김응탁과 김응건은 진사, 김성은 생원, 김응정·김응감·김응중은 향시에 입격하는 등 8명 중 7명이 입격하여 매우 높은 과거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다. 김성의 아들 김경익은 이득윤의 문인이기도 하다.

52) 경주김씨 청주 입향조는 金仁民으로 세조때 미원면 내산리에 입향하였다.

고령신씨⁵³⁾의 경우 申活·申灑·申潑·申景淡·申守淇·申景澄 등 6명이 이잠에게 배운다. 이 중 신활·신호·신발은 왕래하며 강학했다. 신수기를 제외한 5인은 청주 말리곡에 거주했다. 고령신씨의 경우 신활은 진사시 합격, 신호는 사마시에 합격, 신발은 향시 합격, 신경담·신경징 형제는 무과에 합격하였다. 즉, 6명의 문인 중 5명이 합격하여, 역시 매우 높은 과거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다.

초계변씨⁵⁴⁾의 경우 卞景福·卞景祿·卞惟淸·卞惟精·卞惟寅 등 5명이 이잠에게 수학하였다. 이 중 변경록·변경복은 형제로, 이잠에게 왕래수학하였다. 변경록·변경복·변유인·변유정·변유인 등은 모두 청주 비홍에 거주하였다.

청풍김씨는 金記·金忠伯·金敬伯·金孝伯·金仁伯 등 5명의 문인이 기록되어 있다. 김충백·김효백·김인백은 삼형제로 청주 입향조 김운의 증손이며, 모두 한성에 거주했다. 김인백의 아들 김극형은 이득윤에게 배웠다. 김기는 무과에, 김인백은 한성시에 합격했다.

안정나씨⁵⁵⁾는 羅允愿·羅允忠·羅允愾·羅允憲 등 4명의 문인이 기록되어 있다. 입향조는 羅元傑인데 이잠의 큰형 李渾의 부인이 바로 나운걸의 딸이다. 그리고 나운걸의 손자인 나운충·나운서·나운현 3형제가 이잠의 문인이다. 이들 삼형제는 모두 청주 비홍에 살았다. 4명의 문인 중 나운충은 문과, 나운원은 생원, 나운서는 향시에 합격하였다.

문인들의 표를 보면 친족들이 거의 같은 마을에 모여 살았던 것도

53) 고령신씨 청주 입향조는 申淑舟의 손자 申光潤으로 연산군 때에 갑자사화(1504년)를 피해, 1510년 경 가문의 농장이 있던 북이면 용계리 茅涯마을로 입향하였다. 1540년 청주 낭성면 목정리로 거주지를 옮긴다.

54) 초계변씨의 청주 입향조는 卞忠男으로 증종대 기묘사화 이후 1570년 경 충청남도 직산에서 처가 파평윤씨가 있던 청주 飛鴻(현, 내수읍 비상리)으로 입향하였다.

55) 성종때 나운걸(1456~1495)이 조모 파평윤씨 묘를 수호하기 위해 지금의 대전시 신탄진에서 내수읍 비중리로 입향하였다.

파악된다. 경주이씨는 청주 石花村(현 북이면 석화리), 경주김씨는 청주 南京谷(현 미원면 내산리 인근 추정), 고령신씨는 청주 末里谷(현 낭성면 목정리 인근 추정) 초계변씨는 청주 飛鴻(현 내수읍 비상리), 청풍김씨는 청주 梧根(현 청원구 오근장동), 안정나씨는 청주 비홍(현 내수읍 비중리), 안동김씨는 청주 오근, 문화유씨는 청주 楓井(현 내수읍 楓井里), 아주신씨는 청주 松洞(현 청주 미원면 가양리 송곡(풀무골), 남양홍씨는 청주 板橋(현 청주 미원면 수산리), 청주손씨는 청주 釜項, 여흥민씨는 청주 오근, 고성이씨는 청주 풍정, 교하노씨는 청주 駕山(현 남일면 가산리), 충주지씨는 청주 수곡에 集姓하고 있었다.

2. 이득윤의 문인

西溪 李得胤(1553~1630) 역시 많은 문인들을 강학하였는데, 「서계선생연보」에 “1592년 문도 수백인과 左龜山으로 피신을 하고⁵⁶⁾”라는 기록으로 미루어보면 40여 세의 젊은 나이에 이미 그 문인이 수백 인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득윤의 구체적인 문인명단 역시 『家乘』 「문인록」에 23명이 기록되어 있고, 『剡溪先生門人錄并西溪先生門人錄』 「문인록」에는 『가승』에 실린 23명에 41명이 추가되어 총 64명이 실려 있다. 다음은 『가승』과 『섬계선생문인록병서계선생문인록』에 실린 이득윤의 문인을 수록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56) 『慶州李氏先世實錄』 <西溪先生年譜> “壬辰四十歲 值龍蛇之藴 與門徒數百人 避兵於左龜山 讀書於玉華洞 朔安心谷東西齋”

<표 5> 서계 이득윤 문인록

성명	生年	본관	거주지	과거	성명	生年	본관	거주지	과거
李德洙	1577	韓山	淸州주성	進士,文科	崔鳴吉	1586	全州	청주	生員,文科
李時發	1569	慶州	鎭川초평	文科	崔惠吉	1591	全州		進士,文科
申之益	1588	鵝州	청주松洞		全 湜	1563	沃川		小科,文科
申之悌	1562	鵝州	의성	文科	禹 廷		丹陽		
尹廷鸞		坡平	연기		洪錫箕	1606	南陽	청주	文科
尹廷鴻		坡平	연기		李景曾	1595	德水		進士,文科
金應伯	1574	淸風	청주梧根		趙誠立	1568	橫城	京	文科
韓百謙	1552	淸州	경	生員,遺逸	宋廷祚	1568	恩津		
辛 撤	1579	靈山			李尙質	1597	全州		進士,文科
李光胤	1564	慶州	청주	進士,文科	李尙馨	1585	全州		文科
李昌胤	1572	慶州	忠州	進士	李尙貞				
卞惟寅	1566	草溪	청주		徐挺然	1588	南陽		生員,文科
柳 鯨		文化	청주飛鴻		趙希逸	1575	林川		
宋承吉	1577	恩津	懷德	生員	朴守儉	1629	義興	堤川林湖	進士,文科
金景漢	1583	慶州	청주실곡	生員	趙德立	1569	平壤		生員
卞時爽	1603	草溪	청주		李弘有	1588	慶州	청주	生員
卞時望	1587	草溪	청주미원	進士	李弘復	1593	慶州		
尹承任	1603	坡平	청주		李弘縉	1554	慶州		
卞時益	1598	草溪	청주	生員,文科	李弘紳	1558			
羅萬紀	1595	安定	京	生員,文科	朴東設		潘南		
羅萬鍾		安定	청주		李弘紋	1602			
金 鎰		羅州			鄭以乾				
辛德淵	1556	靈山	청안		李師顔				
申 杆		高靈			李三俊	1585	全州	청주	生員
金克亨		淸風			金應鐸				進士
尹 淳		咸安			李 昉	1596	新平	청주	生員,文科
申 稅		高靈			金景翼		慶州		
池德海	1583	忠州	청주	文科	卞承益		草溪		
吳行敏	1564	寶城		文科	李仁胤		慶州		

吳行健	1562	寶城	淸州송절동	進士,文科	李元薰	1545			
申 涌	1560	高靈			趙存中	1577	楊州	任實	進士
朴坤元	1547	咸陽	淸州	進士	李 耆	1589	全義	淸州	進士,文科

이득윤의 문인록은 이잠의 문인록과는 다르게 편제되어 있다. 이잠의 문인록이 문인들의 생년 순이라면, 이득윤의 문인록은 생년과는 상관없이 이득윤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문인들이 앞에 배치가 되어있다. 李德洙부터 辛德淵까지 23명은 『가승』과 『섬계선생문인록병서계선생문인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다.

이득윤 문인록에 처음으로 기록된 李德洙(1577~1645)는 한산이씨로 청주 수름재에 거주했다. 그는 이득윤의 제자이자 동시에 김장생의 문인이었는데, 인조반정으로 典簿가 되었으며, 병자호란 때에는 적정을 살피러 청군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이덕수의 조카사위인 송시열이 수름재에서 이덕수에게 학문을 연마하였다. 이러한 족적, 학문적인 연결로 송시열과 청주와의 밀접한 관계가 시작된다. 두 번째로 기록된 李時發(1569~1629)은 경주이씨로 진천 초평입향조 이대건의 아들이다. 문과합격 후 임진왜란 때 활약했으며, 이몽학 난을 진압하는데 기여하였다. 인목대비 폐비론에 반대하여 낙향하였다.

세번째와 네번째로 기록된 申之益(1588~1649)과 申之愷(1562~1624)는 鵝州申氏다. 신지익은 청주 松洞에서 거주하였는데, 이득윤의 만사를 짓기도 하였으며, 청주 노론계 서원인 검암서원 제향되었다. 신지제는 신지익의 종형으로 의성에 거주했다. 여덟 번째로 기록된 韓百謙(1552~1615)은 청주한씨로 특히 주역에 조예가 깊었던 인물이다. 1601년 청주목사로 내려온 후 역학에 밝다고 이름난 이득윤을 찾아가 배운 것으로 보인다. 열 번째 기록된 李光胤(1564~1637)은 이득윤의 동생이다.

열두번째로 기록된 卞惟寅(1566~1641)과 열일곱번째로 기록된 卞時

望(1587~1655)은 부자지간으로 본관은 초계이다. 청주 거주인물들로 변유인은 이잠과 이득윤에게 모두 강학받았으며, 이득윤 사후 제문을 짓기도 하였다. 변시망은 이득윤의 사위로 10년간 『周易』을 읽었다고 하여 조정에 천거되었다. 신항서원 원장을 지냈으며, 이득윤의 만사와 제문을 지었다. 스무번째로 기록된 羅萬紀(1595~?)는 1617년 성균관 유생들을 이끄는 色掌으로서 仁穆王后의 열 가지 죄를 일일이 들어 상소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조반정으로 서인들이 정권을 장악한 후 처벌되었으며, 이후 동생 나만엽의 관로가 막히기도 하였다.

이득윤의 64명 문인 중 문과 합격생이 21인, 소과 합격생이 11명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문인들이 어려운 과거에 합격하고 있다. 문과 합격 인물은 李德洙, 李時發, 申之悌, 李光胤, 卞時益, 羅萬紀, 雷峰池德海(1583~1641, 청주 거주), 盡巖 吳行敏(1564~1618)과 德溪 吳行健(1562~?, 淸州 송절동 거주) 형제, 병자호란때 주화론을 이끈 遲川 崔鳴吉(1586~1647)과 柳下 崔惠吉(1591~1662) 형제, 沙西 全湜(1563~1642), 晚洲 洪錫箕(1606~1680, 청주 거주), 松陰 李景曾(1595~1648), 拙翁 趙誠立(1568~1627, 京 거주), 家洲 李尙質(1597~1633), 天默齋 李尙馨(1585~1645, 역학에 밝음), 沙峰 徐挺然(1588~?), 林湖 朴守儉(1629~1698, 堤川 林湖 거주), 李昫(1596~?, 청주 거주), 李耆(1589~?, 청주 거주)로 이들은 청주지역은 물론 당시 중앙정계에도 이름이 있었다.

이득윤 문인록에 기록된 64명 중 거주지가 기록된 인물은 모두 33명이다. 33명 중 청주 거주 인물이 22명, 서울 거주인물 3명, 연기 거주인물 2명, 진천·의성·회덕·청안·제천·임실에 각각 1명씩 거주하고 있다. 이잠의 문인과 마찬가지로 이득윤 제자 역시 청주 거주인물이 압도적으로 많다. 22명의 청주지역 거주 사족 중에서 문과·소과·향시 합격생은 14명이나 된다.

이득윤 문인록에 기록된 64명을 다시 성씨별로 분류하면 다음표

와 같다.

<표 6> 서계 이득윤 문인록에 기록된 문인의 성씨별 분류

(*본관이 같은 인물이 2인 이상인 경우 수록)

본관(명수)	성 명(거주지)
慶州李(10)	李光胤(청주) 李昌胤(충주) 李時發(草坪) 李弘有(청주) 李弘復 李弘縉(울산) 李弘紳(청주) 李弘紋(장호원) 李元薰(장성) 李尙貞(연풍)
草溪卞(5)	卞惟寅 卞時奭 卞時望(청주) 卞時益(청주) 卞承益
全州李(4)	李尙質 李尙馨(湖南) 李仁胤 李三俊(청주)
淸風金(3)	金克亨 金應伯 金應鐸
高靈申(3)	申杆 申稅 申涌
坡平尹(3)	尹廷鸞(연기) 尹廷鴻 尹承任(옥화대)
慶州金(2)	金景漢(청주 實谷) 金景翼
安定羅(2)	羅萬紀(淸州 飛鴻) 羅萬鍾
恩津宋(2)	宋承吉(懷德) 宋廷祚
鵝洲申(2)	申之益(청주 松洞) 申之憊(의성)
靈山申(2)	辛撤 辛德淵(청안)
寶城吳(2)	吳行敏 吳行健(청주송절동)
全州崔(2)	崔鳴吉(청주) 崔惠吉

위의 <표 6>을 살펴보면 64명 중 경주이씨 10명, 초계변씨 5명, 전주이씨 4명, 청풍김씨 3명, 파평윤씨 3명, 고령신씨 3명 순이다.

이잡 문인록과 마찬가지로 경주이씨가 10명으로 가장 많다. 두 번째로 많은 성씨는 초계변씨로 卞惟寅·卞時奭·卞時望·卞時益·卞承益 5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중 변유인은 이잡과 이득윤에게 동시에 강학받은 인물이다. 변유인의 아들 시망·시익·시석도 이득윤에게서 강학받았다.

세 번째로 많은 성씨는 전주이씨로 李尙質·李尙馨·李仁胤·李三俊

이 기록되어 있다. 이중 이삼준은 신항서원 원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청풍김씨의 경우 金克亨·金應伯·金應鐸이 기록되어 있다. 이잠의 문인인 김인백이 바로 김극형의 부친이다. 파평윤씨⁵⁷⁾는 尹廷鸞·尹廷鴻·尹承任이 기록되어 있다. 윤승임은 이득윤의 거주지와 가까운 미원 芳村(현 청주 미원면 九芳里)에 세거하였다.

고령신씨의 경우 이잠의 문인록에 6명 기록되었는데, 이득윤 문인록에는 申杆·申稅·申涌 3명만이 기록되어 있다. 이득윤 문인록에 기록된 霽隱 申涌(1560~1631)은 청주 입향조 申光濶의 손자이다. 임진왜란 때 임금을 扈從하여 선무공신이 되었으며, 1702년 남인계 서원인 청주 鳳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이처럼 이잠과 이득윤은 16세기~17세기 초 1세대 청주지역 사림을 이끌었던 인물이며, 그들의 문인 또한 청주지역 사족이다. 문인록에 의하면 이잠의 문인은 93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중 65명인 70% 정도가 청주거주 사족이다. 65명 중 과거합격자가 37명이나 된다. 즉, 이잠의 문인은 주로 청주사림이었으며, 청주 문인 56% 이상이 과거에 합격한 것이다. 이득윤의 문인은 64명 기록되어 있는데 이중 22명인 35% 정도가 청주거주 사족이다. 그리고 22명 중 과거합격생은 14명으로 이득윤의 청주 문인들이 63%라는 높은 입격률을 보여준다. 즉, 이잠과 이득윤의 청주출신 문인들은 98여 명으로 이중 51명이 과거에 합격한다. 즉 이잠과 이득윤의 강학활동으로 청주는 명실공히 재지 사족들의 학문적 수준이 한 단계 진일보한 것이다.

또한 이잠과 이득윤의 문인들은 학연·혼맥·혈연 등으로 얽혀 있었다. 이잠의 문인 나운충·나운서·나운현 3형제의 고모가 이잠의 큰형 李渾의 부인이며, 이득윤의 문인 홍석기는 이잠의 사위이자 신항서원의 원장을 지낸 洪純懿(1551~?)의 손자이며, 이득윤의 사위인 변시망

57) 시조로부터 18세인 尹師皙이 연산군때 사화를 피해 미원 옥화리로 입향하였다.

은, 이득윤 문인 변경복의 손자이다. 또 이득윤의 둘째 며느리는 문인 朴坤元의 딸이다.

특히 이득윤의 제자 이덕수와 홍석기는 이득윤과 같은 낭성팔현의 일인으로 1대 청주사림의 핵심인물이 된다. 또 변시망·나만기·지덕해·오행민 등도 청주사림의 주요 인물로 성장한다. 이것으로 보면 이잠·이득윤 부자의 강화활동은 수준 높은 많은 문인들을 양성해 내어 청주의 사림을 튼튼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문인들의 분기양상

이잠과 이득윤의 문인들은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전반에 집중적으로 과거에 합격하였으며, 청주 지역사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한다. 그러나 이잠·이득윤이 살아있던 17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문인들 사이 특별한 당색이 보이지 않고, 사족기반을 공유하였다. 노론계 가문인 한산이씨·초계변씨·밀양박씨·보성오씨·충주지씨·여흥민씨와 남인 및 소론계 가문인 고령신씨·안정나씨·전주최씨·교하노씨·경주이씨(진천 초평) 등의 자제들이 적어도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까지는 당쟁에 휩쓸리지 않고, 이잠·이득윤의 문하에서 함께 학업을 닦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잠이 죽은 후 1575년 東西分黨이 일어났고, 17세기 중반에 이르러 호서사림의 영수이자 노론으로 정계를 주도한 尤庵 宋時烈(1607~1689)이 청주지역 사족사회에 개입하면서 문인들의 分岐 조심이 보이기 시작한다.

송시열과 청주와의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득윤의 수제자 이덕수의 역할이 있었다. 李德洙(1577~1645)는 한산이씨로 김장생의 문인이기도 하였으며, 그 아들 김집과는 사돈지간이었다. 그리고 송시열은 1625년 이덕수의 동생인 李德泗의 딸과 혼인하고, 처가인 청주 주성동 수름재에서 이덕수에게 배웠다. 이러한 족적인 연결은 학문

적으로도 이어져 이후 신향서원의 운영에 서인 세력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은 역대 신향서원 원장록이다.⁵⁸⁾

<표 7> 신향서원 원장록

대수	이름	생몰년	본관	대수	이름	생몰년	본관
1대	卞景壽	1529~ ?	초계	18대	閔鎮長	1649~1700	여흥
2대	金應生		안동	19대	權尙夏	1641~1721	안동
3대	蔡無易	1537~ ?	인천	20대	崔奎瑞	1650~1735	해주
4대	趙綱	1527~1599	한양	21대	鄭 濤	1648~1736	연일
5대	朴忠悅	1537~ ?		22대	閔鎮遠	1664~1736	여흥
6대	金繼生		안동	23대	李 緯	1680~1746	우봉
7대	蔡無悔	1541~ ?	인천	24대	尹鳳九	1683~1767	파평
8대	卞景福	1538~1629	초계	25대	金元行	1702~1772	안동
9대	李得胤	1553~1630	경주	26대	李思贊		한산
10대	洪純燾	1551~ ?	남양	27대	金履安	1722~1791	안동
11대	金聲發	1569~1649	경주	28대	宋煥箕	1728~1807	은진
12대	李德洙	1577~1645	한산	29대	李 采	1745~1820	우봉
13대	李志淵		한산	30대	金履喬	1764~1832	안동
14대	卞時望	1587~1655	초계	31대	李 光		우봉
15대	李三俊	1585~1635	전주	32대	趙寅永	1782~1850	풍양
16대	宋時烈	1607~1689	은진	33대	金洙根	1798~1854	안동
17대	李秀彥	1636~1697	한산	34대	宋來熙	1791~1867	은진

신향서원의 초대원장은 이득윤·조강과 함께 서원을 건립한 변경수였으며, 2대 원장은 조강의 처가인 안동김씨의 김응생이었다. 이후 조강도 원장을 맡았으며, 이어 청주에서 학행으로 유명했던 박충렬, 안동 김씨 김계생이 이어서 원장을 맡았다. 이어서 변경수의 동생이자 이잠의 문인인 변경복이 원장을 지내며 서원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1608년

58) 『신향서원지』 「신향서원원장록」, 1978.

에는 드디어 이득윤이 신항서원이 원장에 추대된다. 이득윤 이후 이잠 문인 洪純慤, 이득윤 문인 李德洙·卞時望·李三俊이 연이어 신항서원 원장을 맡았다. 따라서 송시열이 원장이 되기 이전 신항서원의 원장은 이잠과 이득윤과 종유하였거나 이들의 청주지역 문인이 중심이 되어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666년에 송시열은 괴산 화양동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신항서원에 깊이 관여하여 드디어 1674~5년 송시열이 신항서원 원장이 된다. 그리고 이후 청주와 연고가 없는 李秀彦·閔鎭長·權尙夏·鄭黼 등 송시열의 제자들과, 李緯·尹鳳九·金元行·金履安·宋煥箕 등 노론의 대표 인사들이 신항서원의 원장이 된 것이다.

또한 서원 제향인물 역시 처음에는 송인수·박훈·경연 세 사람을 제향하다가, 김정·한충·송상현·이득윤을 차례로 추가 제향하였다. 이들은 모두 16~17세기 초 1세대 청주사림으로 지역에서 본보기가 될 만한 인물들이었다. 그런데 1656년에 池若海의 건의로, 청주 출신이 아닌 목은 이색과 율곡 이이를 추가로 제향하였다. 그리고 1662년에 이이를 주향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모두 청주지역을 율곡학파인 호서사림이 주도권을 가지게 하려는 송시열의 의도가 발현된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다른 당파와 관련된 집안이나, 서원 제향에서 신위가 밀려난 후손 집안은 불만을 갖게 되었다.

한편 1674~1675년 송시열이 신항서원 원장으로 있을때 지약해 후사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건은 『숙종실록』 3권 1년(1675) 4월 27일 기사에 자세하다. 이 기록을 요약해 보면 지약해는 송시열의 문인이자 외척으로 신항서원에 이색과 이이의 추향을 건의한 청주 인물이다. 그런데 이시발의 후손인 이인형이 지약해를 후사에 문제가 있다하여, 신항서원 儒籍에서 삭제한다.⁵⁹⁾ 이것을 보면 당시 청주지역에 대한 송시열의 세력확대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았음을

집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반대의 움직임은 이득윤의 제자 이시발의 종손자 이인형이 주도한 것이었다.

1675년에 송시열이 귀양가자, 소론인 명재 윤증의 주도로 신항서원 제향순서를 재조정하려 하였으나 1680년 庚申換局 이후 송시열이 석방되어 무산되었다. 또한 송시열은 1685년에 신항서원에 묘정비를 세워 제향인물의 순서를 영구히 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신항서원은 노론이 주도하는 청주지역의 대표 서원으로 자리잡은 반면, 이득윤의 일부 청주 문인들은 신항서원 운영에서 배제된 채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청주지역의 노론계 세력확장에는 이득윤의 수제자 이덕수와 그 제자인 송시열이 있었고, 이잠·이득윤의 남인·소론계 문인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한다.

이러한 대립양상은 청주지역 서원 건립을 둘러싸고도 일어났다. 1665년~1723년 까지 불과 30여 년 동안 청주지역의 14개소 서원에 건립·추향을 통하여 노론대 반노론간의 첨예한 당파적 대립구도를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대립구도 역시 이잠·이득윤 문인과 그 후손이 관련되어 있었다.

59) 지약해는 아들이 없어 宗族 池鳳翼을 後嗣로 삼았는데 뒤에 보니, 지약해와 지봉익은 族兄弟였다. 지봉익 사후 아들 池應九가 지봉익이 후계가 된 일을 파하고, 지봉익의 아들 池應三으로 지약해 후사를 잇게 하였다. 그러자 청주유생 趙益寬(양주)·權大夏(안동)·李寅馨(경주) 등이 이를 문제삼아 지봉익과 지응구, 지응삼을 신항서원 儒籍에서 삭제하였다. 이 사실에 대하여 실록에서는 그 이유를 ‘그것은 이들이 池氏와 사이가 나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청주지역 노론대 반노론계 사족들 간의 극명하게 대립한다. 이에 대하여 노론계도 지약해의 사돈이자 송시열의 내족인 宋國士 등이 太學에 通文을 보내어 조익관 등을 유적에서 삭제하는 보복을 가하게 된다. 또 당시 신항서원 원장이었던 송시열은 ‘지응구 형제는 잘못된 것을 고쳤으니, 서원의 儒籍에는 도로 올려야 한다’고 하며 지봉익을 복권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신항서원) 유생 중에는 조익관의 당파가 많았으므로 송시열의 말에 따르지 않아’ 실패한다(고수연, 『1728년 戊申亂과 淸州地域 土族動向』, 충북대사학과박사학위논문, 2008, 88~91쪽 참조).

<표 8> 청주지역 서원·사우 건립 운영 현황(*괄호안은 추향연대임)⁶⁰⁾

서원명	건립년 (사액년)	제향인물	당파성향
莘巷書院	1570(1660)	慶延·金淨·朴薰·宋麟壽·韓忠(1632)·宋象賢(1650)·李穡·李珥(1656)·李得胤(1665)	
魯峰書院	1615(1668)	宋麟壽·鄭礪·宋時烈(1695)	노론계
儉巖書院	1694	趙憲·韓日休·池汝海·申之益·卞尙曾·宋國憲·申永植·李東亨·朴文古·延最積	노론계
德川書院	1694	柳希齡·柳興龍	노론계
黔潭書院	1695(1695)	宋浚吉	노론계
雙泉書院	1695	申湜	남인계
松泉書院	1695(1711)	金士廉·崔有慶·李貞幹·朴光佑·李之忠·趙綱·李大建·崔錫鼎(1723)	소론계
華陽書院	1695(1696)	宋時烈	노론계
機巖書院	1699	姜栢年·吳瀟(1826)	소론·남인계
菊溪書院	1701	朴增榮·卞景福·李德洙·李秀彥	노론계
棣華書院	1701	盧繼元·盧後元·盧從元·盧一元	남인계
鳳溪書院	1702	金宇頤·申涌·申漵·權常(1760)	남인계
萬東廟	1704	명나라 신중·의중	노론계
牧隱影堂	1714	李穡	노론계

1694년(숙종 20) 甲戌換局으로 老論과 少論이 집권하자 그해 청주지역의 노론 은진송씨·충주지씨⁶¹⁾·초계변씨·한산이씨⁶²⁾ 가문에서 이득

60) 『열읍원우사적』 청주조와 『증보문헌비고』 권211 학교조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표에 표시된 당파성향은 서원이 운영되었던 후대의 관점까지 적용하였다. 즉, 예를 들면 노봉서원의 경우, 1615년 건립될 당시 노론이라는 당파적 성향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1695년 송시열 추향이후 서원의 운영이나 활동을 노론계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당파성향을 노론계라고 표현하였다.

61) 충주지씨는 池景淸(1548~1599)이 이잠의 제자이고, 그 아들 지덕해가 이득운 제자이다. 지경청의 부인이 은진송씨 宋璿의 딸이고, 지덕해의 묘갈 명도 송시열이 지어주는 등 노론가문이다.

윤 제자 신지익과 이잠 제자 지경담 아들 지여해를 제향한 儉巖書院을 건립하였고, 같은 해 역시 노론 가문인 진주유씨 등이 柳興龍·柳希齡을 제향한 德川書院을 건립하였다. 1695년 송준길을 제향한 黔潭書院을 건립하였고, 그해 청주 인근 괴산에 송시열을 제향한 華陽書院을 세운다. 즉 1656년 신항서원의 위치조정 이후 청주에 대한 송시열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1694년 갑술환국 이후 1년 사이 청주지역에 4개의 노론계 서원이 건립되는 것이다.

서원 건립 상황을 비롯한 청주지역 사족세가 이처럼 노론 중심으로 돌아가던 1695년 고령신씨⁶³⁾·교하노씨 등 청주지역 남인들은 이득운의 문인인 申涌의 형 申滉을 莘巷書院에 제향하여 노론 세력을 견제하려고 하나 실패하고 그해 별도로 雙泉書院을 설립하여 신식을 독향한다. 또 이잠의 문인 李大建 등을 제향한 소론계 松泉書院이 건립된다.⁶⁴⁾ 송천서원 건립은 당시 소론의 영수이자 이득운 문인인 최명길의 손자 최석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득운 문인 이시발의 후손⁶⁵⁾이 가담하였다.

이후에도 청주지역의 노론계와 비노론계의 경쟁적 서원건립 활동은 계속된다. 1701년 신사옥사로 남인세력이 약화되자 한산이씨·초계변

62) 한산이씨의 대표인물은 이득운의 문인 이덕수이다. 이덕수는 사계 김장생의 문인이기도 하며, 송시열이 조카사위이다. 또한 이덕수의 종중손인 이수언 역시 노론계 인물로 신항서원장과 초대 화양서원장을 지낸다.

63) 고령신씨 가문의 인물들은 김종직·이황·정구 등에게 수학하였고, 윤희와 허목 가문과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이득운 문인록에 기록된 霞隱 申涌(1560~1631)은 형 신식과 함께 退溪 李滉의 문하에서 수학하기도 한다.

64) 『증보문헌비고』, 권211, 「학교조」 10 ; 『열읍원우사적』 청주 송천서원.

65) 경주이씨 중 이시발의 후손들은 진천 초평에 뿌리를 내리면서 최석정·이진유·윤순 등 소론의 명문가와 교류하였다. 청주 미원의 이잠 - 이득운 가계가 이후 노론적 성향을 보였다면 1660년(현종 1) 신항서원의 사액을 청한 이경희의 아들 李寅賓과 1675년(숙종 1) 지약해의 후사문제 때 반 송시열 움직임을 보인 李寅馨 등 진천의 가계는 소론으로 활동하였다.

씨가 중심이 되어 이잠 제자 변경복, 이득윤의 제자 이덕수 등 4인을 제향한 노론계 菊溪書院을 건립하였다.⁶⁶⁾ 그러나 그해 남인집안인 교하노씨는 棣華書院을 건립하여 이잠 제자 盧一元 등 4인을 제향한다. 1702년에는 남인집안인 고령신씨와 안정나씨⁶⁷⁾가 중심이 되어 이득윤의 문인 申涌과 申湑·金字顛을 제향한 鳳溪書院을 세운다. 그러자 1714년 노론가문인 한산이씨가 이색을 제향하여 牧隱影堂을 건립하였다. 그 후 1723년(경종 3) 송천서원에 이득윤 문인 이시발의 후손 이인혁과 이제신, 송천서원 창건에 적극 참여하였던 이득윤 문인 崔錫鼎을 추향하였다.⁶⁸⁾

이처럼 이잠·이득윤의 문인이었던 노론계 한산이씨·초계변씨 가문과 소론·남인계 고령신씨·경주이씨·전주최씨·교하노씨 가문은 당파적 성향의 서원 건립 및 추향 경쟁을 통해 자파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대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89년 송시열이 사후에 복권되고 1695년 화양서원과 1704년 만동묘가 건립되면서 청주지역에서 노론세력은 점점 확대되고 있었다. 이것은 1665년 송시열의 신행서원 위치조정을 계기로 이후 서원을 중심으로 한 청주사족의 주도권이 점차 노론에게

66) 『열읍원우사적』 「청주목」 <국계사>.

67) 안정나씨도 동인 가문으로 나윤충과 그 손자 나만기가 각각 이잠과 이득윤 문인이다. 그런데 나만기는 광해군때 복인으로 활동하여 인조반정 이후 처벌되었다. 이 사건으로 나만기의 동생 羅萬葉(1611~1679)까지도 출사에 제약이 가해졌다. 이처럼 나씨들은 이잠 - 이득윤 제자이지만, 또 다른 이득윤 제자인 이덕수와, 그 인척 및 송시열과는 완전히 분기하여 대립하게 된다. 송시열은 李擇之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 즉 “오늘날 廢母論에 가담했던 자의 후손에, 청주 羅萬葉 같은 자는 萬紀의 아우이네…… 작년(1674년) 이전에는 기운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었으나, 지난겨울 이후로 곧 當局 정치를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를 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으니, 이것은 아주 괴이한 일인데도 時流에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니 매우 가소로운 일이네.”라고 하고 있다(『송자대전』 72권 「書」 <與李擇之>).

68) 『여지도서』, 청주목 단묘조.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728년 영조대 무신란을 통하여 이잠·이득윤 제자들의 분기양상은 정점을 찍는다. 영조 무신란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전 시기에 고조된 사족 분기의 양상과 그 결과이다. 반란군이 호서지역 중에서 청주성을 거점으로 삼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청주지역이 무신란이 일어나기 전 영조대 초반 노론 세력의 확대에 반노론 세력의 불만이 팽배해 있던 곳이어서 반 노론세력의 호응을 기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17세기 중후반 중앙 정치가 점차 노론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향촌사회 역시 그 영향을 받게 되었고 청주지역의 경우 우암 송시열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남인 및 소론계 사족들은 당파적 소외감이나 정치 사회적 불만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대립상은 1728년 무신란을 계기로 증폭되었다는 것이다.⁶⁹⁾

실제 이덕수의 후손으로 국계사와 목은영당 건립에 앞장섰던 李鵬海는 친족들과 함께 무신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동하여, 신천영 등 고령신씨 등 남인계 반란군을 진압하게 된다.⁷⁰⁾또 노론계 초계변씨 중에서 변관하가 600여 인을 모아 창의하였는데, 변관하의 5대조 변경수는 이득윤과 신항서원을 건립한 인물이며, 그의 동생인 卞景福은 이잠의 제자로 이덕수와 함께 국계사에 제향되었다. 즉, 반란까지 몰고 간 청주지역 노론과 반노론의 사족들이 실은 100여년만 거슬러 올라가면 그 선조들이 이잠·이득윤의 제자로 함께 수학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69) 고수연, 『1728년 戊申亂과 淸州地域 士族動向』, 충북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8, 138쪽.

70) 『영조실록』 16권, 4년(1728) 3월 27일, 이봉해는 무신란 창의를 공으로 원종 일등공신에 올랐다(『청주무신분무록』하, 1930).

IV. 맺음말

청주지역은 서인·노론계의 宗匠인 우암 송시열이 생전에 학문적·정치적 활동을 전개했던 지역으로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인근에 화양서원(1695년 건립)과 만동묘(1704년 건립)가 건립되어 노론의 상징적 장소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송시열에 의한 노론계 세력확대에 반대하는 청주지역 남인·소론계 사족에 의해 鄉戰이 일어났고, 1728년에는 남인·소론 사족이 중심이 된 무신란 반란군에 의하여 청주성 점령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이러한 청주지역 사족의 모습은 이른바 17세기 후반~18세기의 청주지역 2세대 사림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선 16~17세기 전반 청주지역 1세대 사림은 2세대 사림과는 다르게 다양한 학풍을 수용하였고, 사족간의 다양한 학문적 교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잠·이득운 부자가 있었다. 이잠과 이득운 부자의 학풍과 강학활동, 그리고 문인 양성은 첫째, 琅城八賢이라는 청주의 걸출한 학자군을 완성하게 했으며, 둘째 호서좌도에서 두 번째로 신향서원을 건립·운영하게 했으며, 셋째 이득운과 이잠의 청주 출신 문인 51명을 과거에 입격시켰던 것이다. 즉, 이잠과 이득운 부자는 청주지역에 1세대 사림의 인물과 그 활동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학활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李得胤(1553~1630)은 흔히 서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서경덕의 제자로 화담학파인 서기와 박지화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또 이득운은 김장생이나 정구 등 동서인을 막론하고 다양하게 학문적 교류를 하는 등 절충적이고 개방적인 학풍을 보였다. 또한 이득운은 화담학파 스승들과 마찬가지로 주역 연구에 매진하여 상당한 경지에 올라 있었으며, 自得之學의 학문적 자세를 견지하였다. 이득운의 동생이자 문인인 이광운과 이득운의 문인이자 사위인 卞時望, 한백겸, 이상형 역시 주역에 능

통하여 이득윤의 학문적 특징을 이어가고 있었다.

李潛(1528~1575)과 그 아들 이득윤 부자는 2대에 걸쳐 청주지역 일대의 재지사족들의 강학활동도 적극적이었다. 이잠의 경우 진사시에 입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청주 벽서재에서 100여 명의 문인을 길러낸다. 이득윤 역시 진사시 입격이후에도 부친과 마찬가지로 강학활동에 열중하여, 1592년에 옥화동에 동서재, 1598년 수락동에 완역재, 1609년에 옥화동에 춘풍헌과 추월헌을 각각 지어 놓고 수백명에 이르는 문인들을 강학한다. 이잠과 이득윤의 이런 노력이 바로 16세기~17세기 전반 청주 지역 사족의 학문발전을 이루어 냈고, 1570년 호서좌도에서 두 번째로 청주에 신향서원을 건립할 수 있었으며, 이득윤을 비롯하여 이잠과 이득윤 부자의 문인들이 번갈아 원장을 지내며 서원을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던 것이다.

이잠의 문인 93명 중 65명인 70% 정도가 청주거주 사족이다. 65명 중 과거입격자가 37명이나 된다. 즉, 이잠의 문인은 주로 청주사람이었으며, 청주 문인 56% 이상이 과거에 입격한 것이다. 이득윤의 문인은 64명 중 22명인 35% 정도가 청주거주 사족이다. 그리고 22명의 중 과거입격생은 14명으로 청주출신 문인 중 63%가 과거에 입격하였던 것이다. 즉, 이잠과 이득윤의 강학활동으로 98명의 청주출신 문인들이 배출되었으며, 그 중 51명이 과거에 합격할 정도로 학문적 수준도 높았다. 즉 이잠의 강학활동으로 청주는 명실공히 재지사족들의 학문적 수준이 한 단계 진일보한 것이다.

특히 이득윤의 제자 이덕수와 홍석기는 이득윤과 같은 낭성팔현의 일인으로 1대 청주사람의 핵심인물이 된다. 또 변시망·나만기·지덕해·오행민 등도 청주사람의 주요 인물로 성장한다. 이것으로 보면 이잠·이득윤 부자의 강학활동은 청주의 사람을 튼튼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청주사람의 학문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1630년 이득윤 사후 17세기 후반에 이르면 중앙의 정계에서 불어닥친 당쟁의 영향과 주자성리학의 바람에 이잠과 이득윤 문인들은 분기한다. 그리고 그 움직임에는 이덕수 - 송시열이 개입되어 있다. 즉, 노론의 신항서원 주도권 확보 노력, 각 당파의 서원 건립·추향 경쟁, 각종 향전으로 문인들이 대립한 것이다. 그리하여 17세기 후반에 이득윤의 문인과 그 후손은 철저히 당색으로 나뉘고, 이후 1728년 영조대 무신란이라는 격한 대립을 보여준다. 이들이 바로 17세기 후반~18세기 2세대 청주지역 사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립은 무신란이 평정되면서 청주의 다양한 학맥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노론일색으로 정리가 된다. 그리하여 청주 지역의 학문, 사상사적 위상은 노론계가 중심이 되어 더욱 강화되고 경직된 모습을 보여주며, 결국은 주자성리학을 내세운 노론에 청주지역 사림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 것이다.

[논문접수 : 2014.12.22, 심사시작 : 2014.12.22, 심사완료 : 2015.1.13.]

<참고문헌>

- 『효종실록』, 『선조실록』
 『剡溪先生門人錄并西溪先生門人錄』(1967년 淸州水洛宗中 간행)
 (경주이씨)『家乘』
 『慶州李氏先世實蹟』
 李得胤, 『西溪集』
 李光胤, 『灋西集』
 李春英, 『體素集』
 徐起, 『孤靑先生遺稿』
 宋時烈, 『宋子大全』
 『신항서원지』(1978년 간행)
 고수연, 『1728년 戊申亂과 淸州地域 士族動向』, 충북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8
 김의환, 「慕溪 趙綱의 鄕村社會 活動과 淸州士族의 動向」, 『조선시대사학
 보』 32, 2005
 _____, 「충북지역의 유교문화와 문화권」, 『충북학』 9, 2007
 신병주, 「화담학과 근기 사림의 사상」, 『국학연구』 7, 2005
 이상주, 「서계선생연보와 서계육가·옥화육가의 창작연대」, 『서지학보』
 21, 한국서지학회 1998
 이해준, 「규암 송인수 사후 평가와 추승활동」, 『유학연구』 16, 2007
 _____, 「이유당 이덕수와 17세기 청주 사족」, 『우암논총』 2, 2009
 임동철, 「낭성팔현의 생애」 『충북학』 4, 2002
 조영임, 「西溪 李得胤과 그의 詩世界」, 『우암논총』 2, 2009

<Abstract>

A Study on the Activities to Pursue Study by Lee, Jam and Lee, Deuk-yun and the Trends of Literary Figures in the 16th and 17th Century

Ko, Soo-yeon

In Joseon, the Cheongju area(淸州地域) was where Wooam Song, Shi-yeol(宋時烈), who was the head of the Seoin-Noron line, actively developed his academic and political activities. Hwayangseowon and Mandongmyo were built in its surrounding area right after he passed away, becoming the symbolic places of Noron. On the other hand, there was Hyangjeon by the Namin and Soron line Sajok of the area that opposed the expansion of the Noron line force. In 1728, the Cheongju Fortress was occupied by the rebel forces of Mushinran mainly comprised of the Namin and Soron Sajok. The aspects of Sajok in the Cheongju area can be understood through the activities of the second-generation Sarim from the latter half of the 17th century to the 18th century.

The first-generation Sarim of the Cheongju area in the 16th and the early 17th century accepted a variety of academic traditions and had various academic exchanges among the Sajoks unlike the second-generation Sarim. There were Lee, Jam(李潛), the father, and Lee, Deuk-yun(李得胤), the son, at the center of it. Their academic traditions, activities to pursue study, and cultivation of literary figures

made the outstanding group of scholars called Nangseongpalhyeon(琅城八賢) active in the Cheongju area, result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cond Shinhangseowon in the Hoseojwado, and helped 51 literary figures from Cheongju pass the state exam. In other words, the father and the son developed activities to pursue study that could combine the first-generation Sarim figures and their activities into one. It seems clear that their activities to pursue study raised the academic level of Cheongju Sarim by a notch.

Under the influence of the party strife from the central political circl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7th century after the death of Lee, Deuk-yun, the literary figures in the circle of the father and the son rose to action. The movement was assisted by the best pupils of Lee, Deuk-yun, Lee, Deok-su and Song, Shi-yeol. That is, the literary figures confronted one another due to the efforts to seize the leadership in the operation of Shinhangseowon by Noron, the competition to build a seowon and hold a memorial service in it among the parties, and all kinds of Hyangjeon. In the second half of the 17th century, the literary figures in the circle of Lee, Deuk-yun and their descendents were thoroughly divided by the partisan colors with an intense confrontation of Mushinran(戊申亂) in 1728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The confrontation, however, was sorted out in the Noron color after Mushinran was put down.

Key words : Lee, Jam, Lee, Deuk-yun, Cheongju area,
Song, Shi-yeol, Nangseongpalhyeon